"당신들 있어 광주가 안전합니다"



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9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고 있다.

광주시, 소방의 날 기념식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9일 광주시청 대회 의실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김희철 북부소방서장 등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또 정승태 소방경 등 3명에게 행정안 전부장관 표창, 황준호 소방위 등 4명에게 소방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윤재 의용소방대원 등 4명과 송정

김희철 북부소방서장 등 16명 포상 김성한 전 KIA감독 명예소방관 위촉

사랑병원(단체)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경원 소방장은 심정지환자 최다 소생 실적을 인정 받아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13번째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김성한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은 광주명예소방관으 로 위촉됐다. 김 전 감독은 소방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사 기진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 원 직급별 정원 기준 조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중기협동조합, 중기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9335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임경준 (왼쪽 세번째) 광주전남회 장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 합 이사장들은 지난 8일 중 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후 원금 9335만원을 전달했

이날 후원금은 임경준 회 장을 비롯해 지역 협동조합 회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임경준 회장은 "협동조합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매년 기부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사회 사각지대를 찾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 제공〉

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업종별 48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설립돼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고 나눔에 동참 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1등급 기업 선정



한전KPS(사장 김홍연·사 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 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KPS는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2개 부문 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전KPS는 기존 인적자원 중심의 아날로그형 기업 에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과 신재생사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 장에도 힘쓰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굿네이버스, 순천교육지원청에 여아 위생용품 전달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제공〉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수경)가 최근 순천교육지원청에 여아를 위한 위생용 품이 담긴 '포근포근 희망상자'를 전달했 다.

'포근포근 희망상자'는 굿네이버스와 GS 건설, 남촌재단이 함께하는 여아지원사업이 다. 여아들을 위한 1년분 생리대와 생리대 파우치, 온찜질팩, 스틱 비누 등으로 구성돼

'포근포근 희망상자'는 정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사업 선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으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46명에게 제공될 예정이

이용덕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아들 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신 굿네이버 스 전남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와의 협력으로 순천 지역의 복지사 각지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강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경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장은 "여아를 위해 포근포근 희망상자를 후원해주신 GS 건설과 남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 이 여성용품 구입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수어댐 지역민 생활도우미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지사장 이혜승)는 댐 주변 지역민 생활지원을 위해 (사)지역사 랑복지협의회와 '수어댐 주변 생활도우미 위·수탁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민 350여 명이 주 1회 밑반찬과 분기별 세탁지원을 받는다.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제공〉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운동맛집 5분 레시피 55 UHD 숨터	00 달리와 감자탕(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쥬라기캅스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의보감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방과 후 설렘 프리퀄 오은영의 등교 전 망설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커(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여순1019특별기획 기억을 기억하라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쫑알쫑알 똘똘이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2021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5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집 내고향 전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	00 오프 더 레코드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갓파더 스페셜	2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통합뉴스룸 ET(재)	00 MBC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월드 이즈 원 2021 콘서트	20 나이트라인 50 싱싱! 고향별곡(재)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15 출동! 슈퍼윙스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30 한글용사 아이야

08:45 꼬마버스 타요

09:15 봉구야 말해줘3

09:30 추피와 친구들

05:00 왕초보영어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8:00 딩동댕 유치원

09:00 시몽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EBS1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글로벌 뉴스 12:10 극한직업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25 클래스 e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6:00 마샤와 곰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내 친구 몬덕이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5 미스터 마구

19:35 자이언트 펭TV

19:50 건축탐구 - 집

20:40 세계테마기행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유럽

-나의 로망 동유럽〉 21:30 한국기행

〈우리 이렇게 살아요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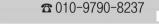
할아버지의 낡은 집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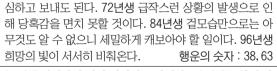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05 바닷가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10월 6일 壬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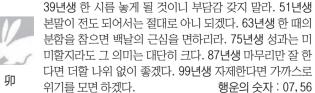
子

37년생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49년생 눈앞에 다 가오고 있으니 면액할 길을 찾아라. 61년생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둬야겠다. 73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숙명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85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영 향력이 행사 되고 있도다. 97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행운의 숫자: 03,69



丑

38년생 반드시 근거를 남겨 두자. 50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 된다. 62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이 절실하다. 74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 니라. 86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 어진다. 98년생 기초와 바탕이 견실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6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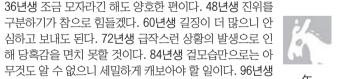


辰

40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르는 것이 맞다. 52년생 맹점 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4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하는 판세이다. 76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 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88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00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 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48,95



41년생 겉만 보고 평가하면 실수하게 된다. 53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정성을 다 한다 면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77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열심히 행하더라도 기대해 왔던 바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01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40,51



42년생 아끼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54년생 기대 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66년생 결정을 보류하 고 충분히 숙고함이 합당하다. 78년생 다양함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실속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90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심하게 된다. 02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0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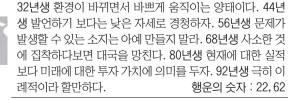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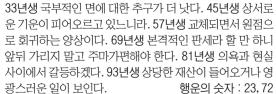
申

酉

戌

43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55년생 막 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67년생 목표를 향해 서 발돋움을 하게 된다. 79년생 복이 흉으로 변할 수도 있음 을 알고 있어야 한다. 91년생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다. 03년생 참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 과 관련 시켜 주리라. 행운의 숫자: 10,52





34년생 늦은 시간에야 겨우 가닥이 잡히겠다. 46년생 상대 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58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70년생 진행되어 왔던 바를 잘 추스른다면 자족할 수 있다. 82년생 주변의 충동이나 유혹 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94년생 열성 을 다 해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08,84



35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옳다. 47년생 너무 힘에 겨운 짐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59년생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71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83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 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95년생 현실을 인정하 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21,74